

고조선사 체계의 재인식*

박 대 재**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고조선사의 시기구분과 계통 |
| 2. 3조선사 체계의 성립 과정 | 5. 맺음말 |
| 3. 3조선 평양설의 성립 배경 | |

1. 머리말

일반적으로 ‘古朝鮮’은 근세의 조선과 구분되는 고대의 조선이라는 의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高麗史』 지리지(西京留守官)에서 前朝鮮(檀君), 後朝鮮(箕子), 衛滿朝鮮 등을 ‘三朝鮮’이라 명명한 이후, 고조선의 실체를 ‘三朝鮮’으로 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¹⁾ 조선시대에 ‘古朝鮮’이란 명칭이 사용되기도 했지만,²⁾ 그보다는 ‘三朝鮮’이 더 일반적이었다.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EAHF-2006-동북아2016-한중-기획-1).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1) 徐居正의 『風月樓重新記』, “平壤三朝鮮高句麗之故都”(『四佳文集』 권1), 『新增東國輿地勝覽』 권51 平壤府, 韓百謙의 『東國地理誌』, 李瀾의 『星湖僿說』, 이종휘의 『三朝鮮年表』(『修山集』 권12),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 李肯翊의 『燃藜室記述』, 丁若鏞의 『大東水經』(『與猶堂全書』 地理集 제7권) 등 조선시대 문헌에서 ‘三朝鮮’의 명칭은 두루 확인된다.

2) 權近의 『平壤城大同門樓記』, “平壤卽古朝鮮箕子之所都也”(『東文選』 권78 및

‘고조선’ 용어는 근대 이후 널리 사용되었다.³⁾ 근대 이후 ‘기자조선’의 역사성이 부정되고 그 대신 ‘개이지조선(奇氏朝鮮)⁴⁾, ‘韓氏朝鮮⁵⁾, ‘검조선⁶⁾, ‘크치조선⁷⁾, ‘濊貊朝鮮⁸⁾, ‘韓朝鮮⁹⁾이란 명칭이 제안되었지만, 그 시기는 인정하여 고조선사를 3단계로 보는 3조선설의 체계는 계속 유지되었다. 북한에서도 전조선(단군조선), 후조선, 만조선으로 구분하여, 3조선사의 체계로 보고 있다.¹⁰⁾

‘고조선’이란 명칭은 조선 왕조 성립 이전인 고려 후기의 『三國遺事』에서 이미 보인다. 『삼국유사』에서는 ‘고조선’條目에 ‘王儉朝鮮’이란 주를 부기하여, 고조선이 단군조선을 가리킴을 보여주고 있다.¹¹⁾ 『삼국유사』의 ‘古朝鮮’은 그 다음 조목인 ‘魏滿朝鮮(衛滿朝鮮) 이전의 조선이란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고조선(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의 2단계로 보는 것은 조선시대 이래의 3조선설과 크게 다른 것이다.

‘고조선’이란 용어는 단군, 기자, 위만 3조선을 모두 포괄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 『삼국유사』처럼 위만조선과 구분되는 그 이전의 조선만을 가

『陽村先生文集』 권12), 『世祖實錄』 3년(丁丑) 5월 26일(戊子)의 ‘古朝鮮秘詞’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 3) 鄭寅普, 『古朝鮮의 大幹』, 『朝鮮史研究』(上), 서울신문사, 1946, 51쪽.
孫晉泰, 『古朝鮮 및 樂浪의 文化』, 『朝鮮民族史概論』, 乙酉文化社, 1948, 54쪽.
- 4) 崔南善, 『兒時朝鮮』, 『朝鮮日報』, 1926; 『조선사의 기자는 지나의 기자가 아니다』, 『怪奇』 2, 1929.
- 5) 李丙燾, 『三韓問題의 新考察(2)』, 『震檀學報』 3, 1935; 『韓國史』(古代篇), 乙酉文化社, 1959.
- 6) 鄭寅普, 앞의 책, 1946.
- 7) 安在鴻, 『箕子朝鮮考』, 『朝鮮上古史鑑』, 民友社, 1947.
- 8) 金貞培, 『所謂 箕子朝鮮과 考古學上의 問題』, 『韓國民族文化의 起源』, 고려대 출판부, 1973.
- 9) 徐榮洙, 『古朝鮮의 위치와 강역』, 『韓國史市民講座』 2, 一潮閣, 1988.
- 10) 박득준, 『고조선력사개관』, 사회과학출판사, 1999; 전대준·최인철, 『조선단대사(고조선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46~51쪽에서는 후조선에 대해 전조선의 근친이나 인맥관계에 있는 후왕급 인물에 의해 기원전 15세기 중엽 평화적으로 계승하여 세워진 나라라고 보면서 ‘기자조선’설을 부정하고 있다. ‘만조선’은 위만조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위만의 衛는 중국인들이 후대에 부회한 성씨며 『사기』의 표현대로 ‘만’이라고 보는 것이다.
- 11) 李基白, 『古朝鮮의 諸問題』, 『韓國古代史論』, 탐구당, 1975, 27~29쪽.

리키기도 한다. 최근 학계에는 후자의 입장에서 고조선과 위만조선으로 양분해 보는 경향이 있다.¹²⁾ ‘고조선’의 범위를 단군조선에만 국한하게 되면, 연대상 위만조선 시기와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¹³⁾ 『삼국유사』에 따라 단군조선의 시대가 1500년간이었다고 보더라도,¹⁴⁾ 기원전 195년 무렵 세워진 위만조선과 연대가 서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위만조선 이전에 있던 조선을 ‘고조선’이라 통칭하더라도, 그 안에는 소위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의 두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기왕에 ‘기자조선’ 대신 ‘한씨조선’, ‘예맥조선’ 등이 제안된 것이나, 최근에 다시 ‘검조선’¹⁵⁾이나 ‘朝鮮侯國·準王朝鮮’¹⁶⁾ 등의 용어가 제안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3조선 가운데 중간 단계의 고조선을 무엇이라 부를지 아직까지 학계의 정설이 없다. 근대 이후 ‘기자조선’에 대한 비판은 많이 축적되었지만,¹⁷⁾ 그 역사적 실체에 대한 조명은 자료의 부족으로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 이 글에서는 전통적인 고조선사 체계인 3조선설의 성립 과정을 살

- 12) 서영수, 『고조선사 연구의 쟁점과 흐름』, 『고조선과 위만조선의 연구쟁점과 대외교류』, 학연문화사, 2015.
- 13) 김정배, 『고조선 연구의 사적(史的) 고찰』, 『고조선에 대한 새로운 해석』,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0, 44쪽.
- 14) 단군의 즉위년과 재위(전세) 기간에 대해선 堯50년(庚寅)~1500년간(『삼국유사』), 堯원년(戊辰)~1048년간(『제왕운기』), 堯25년(戊辰)~1048년간(『동국통감』) 등으로 기록이 다양하다. 각 기록이 근거한 역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기원전 24세기에 단군조선이 개국된 것으로 역산된다. 단군 관련 연대에 해서는 박대재, 『檀君紀元과 古記』, 『韓國史學報』 61, 2015, 8~40쪽 참조.
- 15) 조원진, 『단군과 기자-고조선사의 체계에 대한 고찰-』, 『고조선단군학』 31, 2014, 364쪽.
- 16) 오현수, 『魏略』 기재 朝鮮侯와 ‘取地二千餘里’의 검토, 『韓國史學報』 61, 2015, 54쪽. 단군조선과 위만조선 사이의 고조선을 요서지역의 ‘조선후국’과 요동지역의 ‘준왕조선’으로 구분해 보고, 이 중 ‘준왕조선’이 燕의 침공을 받고 서북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위만조선으로 이어졌다고 이해한다.
- 17) 박준형, 『한국 근현대 기자조선 인식의 변천』, 『고조선사 연구 100년-고조선사 연구의 현황과 쟁점』, 학연문화사, 2009, 98~126쪽 참조.

펴보고, 이를 토대로 단군조선과 위만조선 사이에 존재한 고조선의 성격을 어떤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지 문헌사의 입장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3조선사 체계의 성립 과정

고조선사를 3단계로 나누어 보는 인식은 고려 후기 李承休의 『帝王韻紀』(1287년)에서 단초가 마련되었다. 『제왕운기』에서는 단군의 전조선과 기자의 후조선으로 구분해 보면서도,¹⁸⁾ 위만을 후조선의 왕위를 찬탈한 僭主로 폄하하여 2조선에 부기했다. 정통론적 역사 인식에 따라 위만을 참주로 취급하고, 전·후조선과 구별하여 낮추어 본 것이다. 하지만 『제왕운기』에서 위만을 2조선 다음에 추가함으로써 3조선설의 단서가 열리게 되었다.

『삼국사기』 연표에서는 해동의 역사가 기자로부터 열려 위만으로 이어졌다고 보아,¹⁹⁾ 단군에 대한 인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삼국유사』에서는 고조선(왕검조선)과 위만조선으로 시기를 구분해, 그中间的 기자조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보이지 않는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삼국사기』 동천왕본기에서도 평양이 기자를 제외한 仙人王儉(단군)과 위만의 고도[王險]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반해 『제왕운기』에서는 단군의 전조선, 기자의 후조선과 함께 위만까지 추가하여 3조선 인식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조선 태조 3년(1394) 편찬된 鄭道傳의 『朝鮮經國典』(국호)에서는, 조선 왕조에 앞서 檀君, 箕子, 衛滿 3자가 ‘朝鮮’을 국호로 썼다고 하여, 3

18) 현존 『제왕운기』은 조선 태종 13년(1417)에 간행된 重刊本으로, 여기에는 ‘前朝鮮’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1287년 『제왕운기』 초간 직후 이승휴가 晉陽府 書記 鄭瑄에게 보낸 서간(『動安居士文集』 雜著1 與晉陽書記鄭瑄書)에 의하면, 단군 앞에 ‘前朝鮮’ 4자가 원래 들어갔어야 했다고 한다.

19) “海東有國家久矣 自箕子受封於周室 衛滿僭號於漢初 年代綿邈 文字踈略 固莫得而詳焉”(『三國史記』 卷29, 年表上).

조선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3조선사가 보다 분명하게 체계화 되는 과정은 李詹(1345~1405)이 남긴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이점은 ‘檀君朝鮮’, ‘箕子朝鮮’, ‘魏滿朝鮮’으로 3조선의 명칭을 제시하고 각각의 간략한 역사를 시계열적으로 서술했다.²⁰⁾ 단군조선조에서 『삼국유사』 고조선에서만 확인되는 『魏書』 기록을 인용했고, 위만조선의 표기가 『삼국유사』와 동일하게 ‘魏滿朝鮮’인 점으로 보아, 『삼국유사』를 참고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왕검조선’ 대신 ‘단군조선’이란 명칭을 처음 썼고, ‘기자조선’ 단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삼국유사』와 분명히 차이가 나기도 한다.

李詹은 ‘기자조선’ 조목 아래 “기자가 처음 봉해진 해부터 秦始皇 20년 갑술년에 이르기까지 846년”이라고 주를 붙였다. 이것도 『삼국유사』 등 기존 기록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진시황 20년은 기원전 227년인데, 왜 이 때를 기자조선의 말년으로 비정했는지 의문이다.

기자조선의 말년은 『제왕운기』에 따라 위만이 망명하여 준왕을 몰아낸 漢 高帝 12년(기원전 195)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왕운기』에서는 기자조선의 역년을 周 武王 즉위년(己卯)부터 ‘928년’간이라고 했다. 기원전 227년부터 195년까지의 32년을 928년에서 빼면 896년이 되어 846년과 50년의 차이가 있다. 이점이 언급한 기자조선의 연대가 어떤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지만, 위만조선과의 사이에 연대 간극이 있는 점은 주목된다.

李詹의 3조선에 대한 기록은 원래 태종 3년(1403) 왕명에 의해 河崙, 權近 등과 함께 편찬했던 『동국사략』에 수록되었던 글로 추정된다.²¹⁾ 『동국사략』은 태조 4년(1395) 鄭道傳과 鄭摠에 의해 찬진된 고려의 역사인 『高麗國史』에 이어서 三國史의 정리를 위해 태종 2년 6월 領司平府使 하륜(1347~1416), 參贊議政府事 권근(1352~1409), 藝文館大提學 이첨에게 명하여 修撰이 시작되어 다음해 8월 완성된 편년체 사서로 『三

20) 李詹, 『雙梅堂先生篋藏文集』 卷22, 雜著(金東柱 번역, 『國譯 雙梅堂先生文集』, 民昌文化社, 1999, 부록 883쪽).

21) 鄭求福, 『雙梅堂 李詹의 역사서술』, 『東亞研究』 17, 1989, 308쪽.

國史略』이라고도 한다.

하륜, 권근, 이첨은 연령이나 관직, 학문에서 서로 비등했으므로 세 사람이 동등한 자격으로 수찬해 참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하륜과 이첨은 그 해 10월 초에 明 永樂帝의 즉위를 축하하는 賀登極使로 떠나 다음 해 4월에 귀국하여 7개월이나 수찬 작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로 보아 그들이 하등국사로 갈 때 수찬 업무를 권근에게 위임한 것으로 생각되며, 실질적인 수찬 작업은 권근에 의해 완성되었고, 또 그 序文(三國史略序)과 箋文(進三國史略箋)도 권근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서를 보통 權近의 『三國史略』이라고 칭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²²⁾

『동국사략』이 『삼국사기』를 대본으로 하여 편년체로 다시 정리한 삼국사이지만, 『삼국사기』가 대대사임에 반하여 『동국사략』은 檀君朝鮮 이래의 上古史를 삼국사에 보충한 신라 말까지의 通史라고 이해된다. 『동국사략』에서 檀君朝鮮, 箕子朝鮮, 衛滿朝鮮, 漢四郡, 二府, 三韓으로 이어지는 상고사 체계는 권근 등의 독창적인 견해라기보다 고려 후기 이래 축적되어 온 상고사 인식 체계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사기』까지는 상고사가 체계화되지 못했는데,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의해 단군조선부터 시작되는 상고사 체계가 점차 성립되어갔다. 『동국사략』은 특히 『제왕운기』의 서술을 이어받아, 관찬사서로서는 맨 처음으로 단군조선 이래의 상고사 체계를 정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²³⁾

기존 연구에서는 『동국사략』의 상고사 체계에 『제왕운기』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이첨의 『雙梅堂篋藏文集』²⁴⁾에 남아 있는 逸文을 통해, 『동국사략』의 상고사 서술에 『제왕운

22) 鄭求福, 『東國史略에 대한 史學史的 考察』, 『歷史學報』 68, 1975, 4~6쪽. 『太宗實錄』 3년 8월 己亥초에 의하면 정식 명칭은 『東國史略』이었지만, 『陽村集』과 『東文選』에 실려 전하는 權近의 序文과 箋文에 의하면 권근은 『三國史略』이란 서명을 더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23) 鄭求福, 앞의 논문, 1975, 12~13쪽.

24) 『쌍매당협장문집』은 세종 연간에 이첨의 아들 小畜에 의해 목판본 25권이

기』뿐만 아니라 『삼국유사』의 영향도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국사략』은 현재 고려대 도서관 화산문고에 권3~4의 1책만 전해져 그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첩의 문집에는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사군, 이부, 신라, 고구려, 백제, 가락국의 역사가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들 서술은 『동국사략』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魏滿朝鮮’의 표기나 ‘二府’, ‘駕洛國’의 기록은 『삼국유사』에 근거한 것이다.

물론 『동국사략』의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에 대한 서술 내용은 『삼국유사』보다는 『제왕운기』 쪽에 더 가깝다. 하지만 『동국사략』의 상고사 서술에 『삼국유사』의 영향도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국사략』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를 종합하여 3조선에서 시작하는 상고사 체계를 정립했던 것이다. 『동국사략』은 3조선사의 체계를 처음 정립한 사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동국사략』에서 정립된 3조선사 체계는 『고려사』 지리지(1451년)에 이르러 더욱 구체화되었다. 『고려사』에서는 평양이 3조선 모두의 도읍지였다는 인식이 추가되는데, 이러한 3조선 평양설은 기존 사서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다.

- A. 平壤府는 원래 三朝鮮의 옛 도읍인데 唐堯 戊辰년에 神인이 하늘로부터 檀木 아래로 내려오에 국인들이 세워 임금으로 삼고 평양에 도읍을 정하여 檀君이라고 불렀으니 이것이 前朝鮮이다. 周 武王이 商을 이기고 箕子를 조선에 봉하니 이것이 後朝鮮이다. 기자의 41대손인 準 때에 이르러 燕 사람 衛滿이 망명하여 천여 명의 무리를 모아 와서 準의 땅을 빼앗고 王險城[險은 儉으로도 쓰니, 곧 평양이다]에 도읍하였는데, 이것이 위만조선이다.²⁵⁾

간행되었으나 현재 전하는 것은 권22~25이며, 필사본의 연보와 권1~2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 자료들은 『한국문집총간』 제6책에 실리기도 했다. (鄭求福, 『쌍매당 선생 문집 해제』, 『國譯 雙梅堂先生文集』, 民昌文化社, 1999, iii 쪽)

25) “平壤府 本三朝鮮舊都 唐堯戊辰歲 神人降于檀木之下 國人立爲君 都平壤號

『고려사』 지리지의 내용은 평양이 단군의 전조선, 기자의 후조선, 위만조선 등 3조선의 도읍지였다는 것이다.

『삼국유사』에서 단군의 도읍지로 평양이 언급되었지만 이후 아사달과 장당경으로 옮겼다고 하거나, 아니면 『魏書』를 인용한 부분에서는 단군왕검의 도읍지로 아예 아사달만을 거론하고 있다. 또한 기자의 도읍지에 대해서도 그 전신인 孤竹國의 고지가 당시의 ‘海州’에 해당한다고 하여 평양이 아닌 다른 지역에 비정하였다. 이처럼 고려 후기까지는 평양이 3조선 모두의 도읍이라는 인식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조선 평양설은 이후 權擘의 『應制詩註』에서도 보이고 『世宗實錄』 지리지, 『東國通鑑』, 『東國輿地勝覽』 등의 조선전기 관찬사서와 『東國地理誌』, 『東史纂要』, 『東史綱目』, 『我邦疆域考』, 『海東釋史』 등 조선 후기 사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일관되게 이어진다.

17세기 이후 準王을 매개로 기자조선에서 마한(삼한)으로 역사의 정통이 이어졌다고 보는 三韓正統論이 대두했다. 이에 따라 위만조선의 역사는 삼한에 비해 덜 주목받게 되었다. 고려 후기 『제왕운기』부터 이미 위만이 참주로 비판되었는데, 17세기 이후가 되면 아예 삼한을 먼저 언급하면서 상고사의 체계가 단군조선-기자조선-마한으로 이어졌다고 보게 된 것이다.

조선 전기 『동국통감』에서는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등 3조선을 먼저 서술하고 그 다음에 3한을 서술하였지만,²⁶⁾ 조선 후기 『동사강목』에서는 단군조선-기자조선 다음에 마한을 먼저 서술하고 위만조선은 僭國의 예로 그 뒤에 부가하였다.²⁷⁾

조선 후기에 정통론이 대두하면서 위만조선의 위상은 마한에 비해 자

檀君 是爲前朝鮮 周武王克商 封箕子于朝鮮 是爲後朝鮮 逮四十一代孫準時 有燕人衛滿 亡命聚黨千餘人 來奪準地 都于王險城[險一作儉卽平壤] 是爲衛滿朝鮮”(『高麗史』 卷58, 地理志3 西京留守官).

26) 『東國通鑑』 外紀.

27) 『東史綱目』 凡例 및 圖上 東國歷代傳授之圖.

연히 격하되었다. 하지만 위만조선이 3조선의 마지막 단계였다는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李鍾徽는 『東史』에서 위만조선을 ‘中朝鮮(기자조선)²⁸⁾ 다음의 ‘後朝鮮²⁹⁾이라 명명해, 3조선사 속에 분명히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것은 『제왕운기』 이래 기자조선을 후조선이라 보고, 위만조선을 정통에서 배제한 것과 다른 인식이다.

물론 이종휘도 ‘後朝鮮本紀’를 ‘三韓本紀’ 다음에 서술하여,³⁰⁾ 삼한정통론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후조선’을 본기에 넣은 것은 『동국통감』과 같은 3조선사의 체계를 계승한 것이다. 이종휘의 『동사』에는 단군본기, 기자본기, 삼한본기, 후조선본기 등 4편의 본기가 있다. 이처럼 3조선과 3한을 모두 본기에 넣되 삼한을 위만조선 앞에 놓은 것은 3조선설과 삼한정통론을 절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종휘가 奇氏·韓氏의 족보를 근거로 중조선과 삼한의 왕계·연대를 추정³¹⁾한 것은 신뢰할 만한 서술은 아니지만, 정통론에서 벗어나 고조

28) “中朝鮮太祖文聖王姓子氏 或曰名胥餘 其先殷王成湯也 末帝受之諸父 當周武王之革命 率其徒五千人 東渡遼水 居平壤之邱 周武王仍以封之而不臣也”(『修山集』 卷11, 東史世家 箕子世家[補遺]).

29) “後朝鮮王衛滿者 故燕人也 漢高皇帝封功臣盧綰於燕 盧綰叛 漢亡入胡 滿故爲盧綰臣 亡命 聚黨千餘人 渡淇水 求屬朝鮮 朝鮮拜爲博士 封之百里 使守西鄙 滿并有秦故空地 上下鄣 稍役屬眞番諸小國及燕齊亡命者 衆漸盛 遂詐遣人稱漢人來伐 請入宿衛 朝鮮未及設備 滿潛師已迫 王準遂南遁金馬 滿入據平壤 卽王位 仍故國號朝鮮 時漢惠帝元年丁未也”(『修山集』 卷11, 東史本紀 後朝鮮本紀).

30) “外史氏曰 余以馬韓接朝鮮 退衛滿於後 以明正僞之統”(『修山集』 卷11, 東史本紀 三韓本紀).

31) “三朝鮮猶中國之三皇也 其事不可得以考 然其立國年月 因中國之史而可以詳其始末 至於中朝鮮 既得其王號年代於奇氏韓氏舊譜中 與司馬遷史諸年表 按以驗之 有中有不中 然疑以傳疑亦史法也…余讀奇氏譜 中朝鮮 自文聖元年至哀平末年爲千十四年 稽諸正史 自武王己卯迄于漢高帝丙午 乃九百二十八年 雖乖異 不可闕其年表 故三老王以下只書年數 而不及其薨立之蹟焉 至於檀君尙矣 事例尤從其簡云”(『修山集』 卷12, 東史年表 三朝鮮年表).

“余於是 因奇氏譜 繼中朝鮮之後 起哀平王 訖稽王 凡二百十六年 著其大略 以俟後之博雅 辰卅二韓 事蹟無可考 而亦嘗臣屬於馬韓 故又不足爲之論次云”(『修山集』 卷12, 東史年表 三韓年表).

선사의 흐름을 전-중-후 3조선사의 체계로 파악한 것은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 위만조선은 사료에 분명하게 나타난 역사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통과 참위의 명분론에 의해 고조선사의 한 단계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했던 것이다.

조선 전기에 들어와 ‘위만조선’이라 칭해지며, 전조선(단군조선)·후조선(기자조선)과 함께 3조선의 한 단계로 자리매김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단군과 기자의 정통 조선과는 차별되어 인식되었다. 『고려사』에서 기자조선을 ‘후조선’으로 파악한 것도 위만조선을 정통의 범주에서 제외해 보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휘는 기존의 전조선(단군)-후조선(기자) 중심의 고조선사 체계를, 전조선(단군)-중조선(기자)-후조선(위만)의 3조선사 체계로 수정해 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3조선사 체계는 이종휘의 『동사』에 이르러 완전하게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고조선사의 흐름이 전-중-후의 시계열적인 3조선사 체계로 확립되게 된 것이다.

3. 3조선 평양설의 성립 배경

조선시대 3조선설의 가장 큰 특징은 평양을 3조선 모두의 도읍지로 보면서 3조선을 동일한 지역에서 계승 발전한 한 계통의 역사로 본다는 점이다. 평양이 시종일관 3조선 모두의 도읍이었다는 인식은 『고려사』 지리지에서 체계화되었으며, 그 이전까지는 평양이 고조선의 도읍지 중 하나로 단편적으로 언급되었다.

단적인 예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동천왕조에 나오는 다음 기록을 주목해 볼 만하다.

- B. (동천왕) 21년(247) 춘정월 왕은 丸都城이 난을 겪어 다시 도읍이 될 수 없다고 여겨, 平壤城을 쌓고 백성과 廟社를 옮겼다. 평양은 본디 仙人王儉의 터이며, 혹은 왕의 도읍 王儉이라고도 한다.³²⁾

이 기록은 고구려가 魏 幽州刺史 田丘儉의 침공으로 환도성이 유린되고 난 후 평양성을 새로운 도읍지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이 기록은 평양이 선인왕검 즉 단군왕검의 터전이자, 또한 위만이 도읍한 王險城으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준다. 고려 후기 『趙延壽墓誌』(1325)에서도 “平壤之先 仙人王儉 … 壽過一千”이라고 하여, 선인왕검이 단군을 가리키는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³³⁾

이 기록의 “왕의 도읍 王險”은 『史記』 조선전의 기록을 誤讀한 것이다.³⁴⁾ 『사기』의 기록은 위만이 “진번·조선의 蠻夷와 燕·齊의 망명자들을 복속하여 王이 되고(王之), 王險에 도읍했다(都王險)”는 것이다. 『사기』에서는 ‘王之’와 ‘都王險’ 사이가 끊기는데, 『삼국사기』에서는 ‘王之都王險’으로 연결해 본 것이다. 어쨌든 『삼국사기』 기록에선 평양을 단군과 위만의 도읍지로 본 것이다.

여기서 평양이 단군과 위만의 도읍지로만 나오고, 기자와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따르면 평양에 있던 고조선은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으로 구분된다. 이것은 『삼국유사』의 고조선(왕검조선)과 위만조선 체계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삼국사기』 동천왕기의 전거자료가 『삼국유사』와 같은 국내의 古記 계통일 가능성을 시사한다.³⁵⁾

고려시대에는 고조선의 도읍에 대해 평양설 외에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 『삼국유사』에서는 『魏書』를 인용하여 단군왕검의 도읍이 阿斯達이라 했고, 이어서 『고기』에서는 단군왕검이 平壤城에 도읍했다가 白岳山 阿斯達로 移都했고 기자가 조선에 봉해지자 藏唐京으로 옮겼다가 뒤에 다시 아사달에 돌아와 산신이 되었다고 했다. 한편 기자조선의 위치에 대해선 『唐裴矩傳』을 인용해 고죽국의 고지인 ‘海州’에 비정했다.

『삼국유사』에서 고죽국의 고지 즉 기자조선의 위치로 비정한 海州에

32) “春二月 王以丸都城經亂 不可復都 築平壤城 移民及廟社 平壤者本仙人王儉之宅也 或云 王之都王險”(『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5 東川王 21년).

33) 徐永大, 「檀君關係 文獻資料 研究」, 『檀君-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 출판부, 1994, 62쪽.

34) 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1977, 267쪽.

35) 박대재, 「箕子朝鮮과 小中華」, 『韓國史學報』 65, 2016, 38쪽.

대해 기존에는 황해도 해주만 생각해 왔다. 『고려사』 지리지에서 황해도 해주의 별호로 ‘孤竹’을 소개하고 또 ‘首陽山’도 있다고 했다.³⁶⁾ 『동국여지승람』에서도 해주의 군명으로 ‘孤竹’을 거론하고, 『隋書』 裴矩傳의 “高麗本孤竹國” 기록과 李詹의 “지금의 海州”라는 설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大明一統志』에 의하면 永平府 서쪽이 孤竹國의 고지가 분명한데, 李詹은 어떤 근거에 의해 海州를 孤竹에 비정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³⁷⁾

永平府는 지금 북경 동쪽의 河北省 盧龍縣을 가리킨다.³⁸⁾ 『동국여지승람』에서는 고죽국의 고지를 하북성 노룡현 서쪽에 비정하면서, 황해도 해주를 고죽국에 비정했던 이첨의 설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이첨은 『삼국유사』를 직접 참고하여 고조선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는데, 고죽국을 “今 海州”에 비정한 것도 『삼국유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해주’는 황해도 해주가 아니라 요동의 ‘海州’인 지금의 海城일 가능성이 높다. 요동의 해주는 遼代(907~1125)에 설치되었는데 그 치소인 臨溟이 지금의 遼寧省 海城市로 관할 경계는 요하 하류 삼각주 지구에 해당한다. 明 洪武 9년(1376)에 海州衛가 되고, 淸 順治 10년(1653)에 海城縣으로 고쳤다.³⁹⁾

『당배구전』에 의하면 고죽국은 기자조선을 거쳐 고구려 영역이 된 지역이다. 『삼국유사』 고구려조에서는 시조 주몽이 도읍한 卒本州가 遼東界에 있다고 했다. 고구려의 초기 중심지역을 요동으로 본 것이다. 고구려와 기자조선의 전신인 고죽국의 위치를 요동 해주(해성)에 비정한 것과 서로 통한다.

『구당서』에서 裴矩가 隋 煬帝에게 고구려를 쳐야 한다고 주청한 이유

36) 『高麗史』 卷12, 地理3 安西都護府 海州.

3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3, 海州牧 郡名.

38) 中國歷史大辭典·歷史地理卷編纂委員會 編, 『中國歷史大辭典』(歷史地理卷), 上海辭書出版社, 1996, 261쪽.

39) 위의 책, 772·4쪽 및 薛國屏 편저, 『中國古今地名對照表』, 上海辭書出版社, 2009, 101쪽.

도 당시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요동이 본래 중국의 제후인 고죽국과 기자의 영역이었는데, 현재는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어 外域이 되었으니 마땅히 정벌해야 한다는 것이다.⁴⁰⁾

배구의 말에 의하면 고죽국과 기자조선의 고지는 요동지역에 있어야 한다. 배구가 요동의 어느 지역을 구체적으로 고죽국의 고지로 보았는지 알 수 없지만, 당시 고구려가 요동성(요양) 등 요하 이동 지역을 영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요동 가운데 해성(해주)을 고죽국 및 기자조선의 고지로 비정한 자세한 근거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천문기록에 析木이 箕와 孤竹과 관련된分野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⁴¹⁾ 析木縣의 존재가 孤竹과 箕子の 근거지를 海州에 부회하게 만든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析木縣은 지금 海城市 동남쪽의 析木鎮으로 遼代에 처음 설치되었다.⁴²⁾

遼代에 海州 아래에 析木縣이 설치되면서, 孤竹과 箕子の 고지가 요동 지역에 부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해주’ 지명이 동일하다 보니, 황해도 해주도 고죽국의 고지로 부회되는 혼선이 다시 생긴 것이다. 이

40) “從帝巡于塞北 幸啓民可汗帳 時高麗遣使先通于突厥 啓民不敢隱 引之見帝 矩因奏曰 高麗之地 本孤竹國也 周代以之封箕子 漢時分爲三郡 晉氏亦統遼東 今乃不臣 列爲外域 故先帝欲征之久矣 但以楊諒不肖 師出無功 當陛下時 安得不有事於此 使冠帶之境 仍爲蠻貊之鄉乎 今其使者朝於突厥 親見啓民從化 必懼皇靈之遠暢 慮後服之先亡 脅令入朝 當可致也 請面詔其使還本國 遣語其王令速朝覲 不然者 當率突厥即日誅之 帝納焉 高麗不用命 始建征遼之策 王師臨遼 以本官領虎賁郎將 明年 復從至遼東 兵部侍郎斛斯政亡入高麗 帝令矩兼掌兵部事 以前後渡遼功 進位右光祿大夫”(『舊唐書』卷63, 列傳13 裴矩).

41) “尾·箕·析木之次也 寅初起尾七度[二千七百五十分 秒二十一少] 中箕星五度 [三百七十分 秒六十七] 終斗八度 其分野 自渤海九河之北 盡河間涿郡廣陽國 [漢渤海郡浮陽 今爲清池縣 屬滄州 涿郡之饒陽 今屬瀛州 涿縣良鄉與廣陽國 薊縣 今在幽州] 及上谷漁陽右北平遼東樂浪玄菟[漁陽在幽州 右北平在白狼 無終縣 隋代爲漁陽郡 古孤竹國 後置北平郡 今爲平州 遼東在無慮縣 卽周禮 醫無閭山 樂浪在朝鮮縣 玄菟在高句驪縣 今皆在東夷也] 古之北燕孤竹無終 及東方九夷之國 皆析木之分也 尾得雲漢之末流 北紀之所窮也 箕與南斗相近 故其分野在吳越之東”(『舊唐書』卷36, 志16 天文).

42) 薛國屏 편저, 앞의 책, 2009, 101쪽.

런 배경에서 황해도 해주에 ‘고죽’이나 ‘수양산’의 지명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유사』에서 『당배구전』을 인용하여 “고려는 본디 고죽국”이라 했고, 또 고구려의 졸본주가 요동에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고죽국의 고지로 비정된 해주도 황해도 해주가 아니라 요동의 해주를 염두에 둔 것이라 보아야 한다.

이처럼 『삼국유사』의 찬자가 고죽국 및 기자조선의 위치를 요동 해주(해성)에 비정한 것은 단군조선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도 시사점이 있다. 기자와 수봉 지역을 요동으로 보면서, 평양에 있었던 단군조선과 구분해 인식하게 된 것이다.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은 모두 평양 일대에 있었던 고조선인 반면, 요동에 있던 기자조선은 이와 구별된 존재로 인식된 것이다. 이것은 『삼국유사』에서 고조선(단군조선)과 위만조선 사이에 기자조선 단계를 설정하지 않은 이유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서 기자조선의 중심지를 평양이 아닌 요동으로 인식했음은 마한의 위치 비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기자조선의 말왕 준왕이 위만에게 쫓겨 내려와 마한을 세웠는데, 마한의 위치는 ‘馬崑山’이 있던 고구려 고지였다고 이해하고 있다.

현재 전하는 『삼국유사』 목판본(조선 중종 7년 간행)에는 ‘崑山’이라고만 나오지만, 일본 天理大學 소장 手澤本 『삼국유사』에 의하면, 원래는 ‘馬崑山’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보장왕 20년(661) 8월, 소정방이 고구려 군사를 溟江에서 깨트리고 ‘마읍산’을 빼앗은 후 마침내 평양성을 포위하였다. 이 ‘마읍산’ 기록은 『삼국유사』 태종춘추공조에서도 보인다. 『동국여지승람』 평양부 고적조에서는 『一統志』를 인용해 평양성 서남쪽에 마읍산이 있으며, 소정방이 평양을 포위할 때 빼앗은 마읍산이 바로 이 산이라고 하였다. 『삼국유사』에서는 평양 근교의 마읍산을 근거로 마한이 고구려 고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평양을 마한과 고구려의 고지라고 본 것은 최치원 이래의 전통적인 삼한-삼국(일통삼한) 계승인식에 의한 것이다. 일통삼한의식에 의하면

마한은 고구려와 연결된다.

조선 후기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이후 마한-고구려 인식이 극복되고, 현재와 같은 마한-백제 인식이 성립되었다. 하지만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마한이 고구려가 되었다거나, 또는 변한이 고구려가 되었다는 인식이 통설로 받아들여졌다.⁴³⁾ 고려시대에 평양이 마한과 고구려의 고지로 인식된 것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준왕이 남래하여 세운 마한의 고지를 평양 일대에 비정하게 되면, 준왕 남래 이전 기자조선의 본래 중심은 평양이 아닌 다른 지역이 되어야 한다. 『삼국유사』에서 기자조선의 전신인 고죽국을 요동의 해주로 비정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제왕운기』에서도 3조선의 도움을 평양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중국과 구분되는 遼東의 별건곤 가운데 조선이 있다고 하여,⁴⁴⁾ 조선을 요하 동쪽에 넓게 비정하고 있다.

『제왕운기』에서는 후조선(기자조선)의 준왕이 남래한 지점 즉 마한의 위치를 金馬郡(전북 익산)으로 비정하여,⁴⁵⁾ 『삼국유사』에서 마한을 평양 일대에 비정한 것과 차이가 난다. 그러면서도 주몽이 “漢 元帝 建昭 2년 갑신에 馬韓 王儉城에서 개국했다”하여,⁴⁶⁾ 여전히 마한과 고구려를 연결시켜 보기도 했다. 전통적인 삼한-삼국(일통삼한)설에 입각해 마한을 고구려 고지로 보기도 하는 한편 백제 고지인 익산 일대에 비정하기도 한 것이다.

『삼국유사』에서도 “요즘 사람 가운데 간혹 金馬山을 인식해 마한을 백제라고 보는 자가 있으나 잘못이다”⁴⁷⁾고 지적한 바가 있듯이, 고려시대에는 평양이 마한의 고지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43) 노태돈, 「三韓에 대한 認識의 變遷」, 『韓國史研究』 38, 1982.

44) 『帝王韻紀』 卷下 東國君王開國年代 并序, “遼東別有一乾坤 斗與中朝區以分 洪濤萬頃圍三面 於北有陸連如線 中方千里是朝鮮 江山形勝名敷天 耕田鑿井 禮義家 華人題作小中華”.

45) 『帝王韻紀』 卷下, 後朝鮮紀.

46) 『帝王韻紀』 卷下, 高句麗紀.

47) 『三國遺事』 卷1, 紀異 馬韓.

준왕이 남래하여 세운 마한을 마음산 주변의 평양으로 비정하게 되면, 기자조선의 원래 중심지는 자연히 평양이 아니게 된다. 평양이 마한 고지였다고 보는 삼한-삼국설이 받아들여지는 한 3조선 평양설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제왕운기』에서 준왕의 남래 지점을 금마군(익산)으로 비정하면서, 기자조선의 본래 위치가 평양에 비정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 『제왕운기』에서 제기된 준왕의 금마(익산) 남래설은 조선시대에 들어가 삼한(마한)정통론으로 발전하게 된다.⁴⁸⁾

고려시대에 평양이 기자의 고도로 인식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고려 숙종 7년(1102) 10월 평양에 箕子祠를 건립하고 그 제사를 국사 祀典에 포함시켰다.⁴⁹⁾ 숙종이 서경을 방문했을 때 禮部에서 우리나라의 교화와 예의는 기자로부터 비롯되었음에도 묘가 없고 祀典에 빠져있으니, 墳塋을 찾아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올릴 것을 건의하자 그에 따랐던 것이다.⁵⁰⁾

또한 명종 8년(1178)에는 평양의 箕子祠에 油香田 50결을 지급했다. 그 뒤 기자사 제사는 중단되기도 했으나, 충숙왕 12년(1325)에 다시 부활했고, 공민왕때에도 평양부에 다시 기자 사당을 세우고 수시로 제사 지내게 했다.⁵¹⁾

사실 평양과 기자의 관계는 고구려의 평양도읍 시기부터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舊唐書』에 보이는 고구려의 ‘箕子神’ 제사⁵²⁾가 바로 그러한 사실을 전해준다. 箕子墓가 평양성 북쪽 靑山 위에 있다고 한 『고려사』 지리지의 기록도 기자와 평양의 관계를 시사해준다.

48) 金貞培, 『準王 및 辰國과 ‘三韓正統論’의 諸問題』, 『韓國古代의 國家起源과 形成』, 고려대 출판부, 1986.

49) 『高麗史』 卷63, 志17 禮志5 雜祀.

50) 『高麗史節要』 卷6, 肅宗 7年 冬10月.

51) 이강한, 「1325년 箕子祠 祭祀 再開의 배경 및 의미」, 『한국문화』 50, 2010, 3~26쪽.

52) “其俗多淫祀 事靈星神·日神·可汗神·箕子神”(『舊唐書』 卷199上, 東夷傳 高麗).

『高麗史』樂志 西京조에서 “서경(평양)은 古朝鮮 즉 箕子가 봉해진 땅이라”고 했고, 같은 책 俗樂 大同江조에서도 고려에 들어와 백성들이 평양에 봉해진 기자의 교화를 기리며 대동강을 황하에 비유하고, 永明嶺을 崇山에 비유한 노래를 지어 기자를 기렸다고 했다. 이로 보아 고려 중기 이후 평양이 기자의 고도라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⁵³⁾

하지만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에서는 아직 평양이 단군, 기자, 위만 3조선 모두의 도읍지로 일관되게 인식되지 않았다. 고려시대에는 3조선 평양설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제왕운기』에 이르러 전조선-후조선-위만으로 이어지는 3조선사 체계의 기초가 마련되었지만, 평양이 3조선의 도읍지로 인식되지는 않은 것이다.

기자와 평양의 관계는 단군과 위만의 그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3조선 평양설이 성립된 15세기 이후에도 기자조선의 위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했다. 전-중-후 3조선사 체계를 확립한 이종휘의 『東史』에서도 기자의 처음 거주지는 遼水 동쪽이었고, 나중에 평양에 이르렀다고 단계적으로 파악했다.⁵⁴⁾

조선 후기에 기자조선의 초기 중심지를 요동에 비정해 보는 시각이 대두하게 된다. 尹根壽(1537~1616)의 『月汀漫筆』에서 箕子井과 箕子廟가 전해지는 廣寧城(지금의 遼寧省 北鎮)을 기자조선의 지역으로 추정했다.⁵⁵⁾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朴趾源(1737~1805)은 『熱河日記』에서 箕子朝鮮 東遷說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서』 배구전을 근거로 들면서, 고죽의 고지인 요서 영평부가 箕氏의 처음 거주지였다가, 뒤에 다시 요동

53) 박대재, 앞의 논문, 2016, 36쪽.

54) “初居遼水之左 百姓咸歸之 於是檀氏徙白岳 箕子至平壤 東民父老酋長咸來迎”(『修山集』 卷11, 東史本紀 箕子本紀).

55) “廣寧城北五里許 有箕子井 傍近舊有箕子廟 中有箕子戴方巾塑像 嘉靖間 爲獐子所燒 今廢 廣寧在箕子封內 無水箕子留駐此地 而有井及廟耶”(尹根壽, 『月汀集』 別集卷4, 漫錄). 또한 『月汀集』 第5卷 序, 送李僉樞[壽俊]如京序와 『月汀集』 第3卷 七言古詩, 送趙正郎[緯韓]以行臺如京에서는 廣寧을 각각 箕子의 行都와 行宮으로 파악했다.

의 광녕을 거쳐 평양에 이르렀다고 보았다.⁵⁶⁾ 윤근수의 설에 『당서』 배구전의 기자조선 인식을 더해 기자조선의 중심지가 요서-요동-평양으로 東遷했다고 본 것이다.⁵⁷⁾

박지원이 箕子朝鮮 東遷說의 근거로 제시한 『당서』 배구전, 『요사』 지리지, 『원사』 지리지 등은 모두 후대의 지리 인식이 반영된 기록이란 점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기자조선의 위치가 원래부터 평양이 아니라 요서나 요동지역이었다고 보는 시각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에 평양은 3조선과 고구려의 도읍지로 인식되었다. 전통적인 삼한-삼국설이 극복되면서 마한과 평양의 관계가 빠지고, 3조선의 도읍지로 비정된 것이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기자조선의 도읍은 평양이 아니라는 이설이 존재했다.

- C. 平壤은 옛 王儉城으로 檀君·箕子·衛滿·高句麗의 도읍이었다. 그 산천과 謠俗이 여러 차례 중국의 史策에 기록되었으나 星歷이 미치지 못한 바나 風教가 미치지 못한 바는 역대 문헌으로도 밝히지 못하는 것이 있다. 혹 이르기를 단군의 향국은 천여 년에 이른다고 하고, 혹 이르기를 기자조선은 평양이 아니라고 하며, 위만·고구려에 이르러서는 그 연대가 더 가까운데도 그 사실이 더 어둡다.⁵⁸⁾

이 글은 1785년 경 尹行恁(1762~1801)이 평양감사로 부임하는 외종숙 趙璣을 송별하며 지은 것이다. 앞에선 평양이 3조선의 도읍이라는 통설을 따랐지만, 뒤에선 기자조선은 평양이 아니라고도 한다는 이설을

56) 朴趾源, 『熱河日記』 渡江錄, 6월 28일 乙亥.

57) 박대재, 「고조선 이동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55, 2017, 21~22쪽.

58) “平壤古王儉城也 爲檀君箕子衛滿高句麗所都 其山川謠俗 屢書中國史策 而星歷之所不及也 風教之所不暨也 歷世文獻無徵焉 或曰檀君享國一千有餘年 或曰箕子朝鮮非平壤 以至衛滿高句麗 其年代逾近 而其事逾晦”(『碩齋稿』 卷11, 送外從叔荷棲趙公出按關西序).

소개하고 있다.

『고려사』 지리지에서 평양이 3조선 모두의 도읍지로 파악된 것은 세종 11년(1429) 이후 평양에서 이루어진 단군과 기자 제사의 병행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기자사가 평양에 처음 설치된 것은 고려시대이지만 조선시대에 들어가 단군사가 함께 설치되면서, 평양이 3조선의 도읍지라는 인식이 확립하게 된 것이다.

기자에 대한 제사는 고려시대에 이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계속 평양에서 이어졌다. 세종 11년(1429)에 평양의 箕子祠 남쪽에 檀君祠를 처음 설치하고, 檀君祠와 箕子祠에 매년 봄·가을로 致祭하게 했다.⁵⁹⁾

다음해 단군사의 위패가 ‘朝鮮侯檀君’에서 ‘朝鮮檀君’으로, 기자사의 위패가 ‘朝鮮侯箕子’에서 ‘後朝鮮始祖箕子’로 개정되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단군과 기자의 위치가 병렬적인 것에서 계승적인 위치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단군사의 위패는 다시 세조 때 ‘朝鮮始祖檀君’으로 고쳐지는데, 단군이 조선 역사의 시조라는 위치를 보다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것이다.⁶⁰⁾

고려시대에 평양에 기자사가 건립되고 제사가 이루어진 것은 평양과 기자를 연결해 보는 인식이 존재했음을 시사해준다. 하지만 고려시대까지는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에 대한 인식이 단편적으로 각각 이루어지면서, 아직까지 평양이 3조선 모두의 도읍지로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삼국사기』(동천왕본기)나 『삼국유사』에서 평양을 단군과 위만의 도읍지로 보는 인식은 보이지만, 그 사이 기자조선까지 평양에 있었다고 보는 3조선 평양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삼국유사』에서 기자조선의 전신인 고죽국을 ‘海州’에 비정한 것이나, 기자조선의 말왕 준왕이 남래하여 세운 마한을 평양 일대에 비정한 것도 모두 평양을 기자의 본거지로 보지 않았음을 시사해준다. 고려시대까지는 평양을 마한과 연결시켜 보는 삼한-삼국(일통삼한) 의식이 보다

59) 『世宗實錄』 卷154, 地理志 平安道 平壤府.

60) 金成煥, 『세조의 평양 巡幸과 檀君墓』, 『朝鮮時代 檀君墓 認識』, 경인문화사, 2009, 64~65쪽.

강하게 받아들여지면서, 평양을 3조선의 중심지로 보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제왕운기』에서 기자조선의 준왕이 남래한 지점이 전라도 금마(익산)로 새롭게 비정되면서 기자조선과 평양이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열리게 되었다. 또한 조선시대에 들어와 평양에 단군과 기자의 사당이 함께 세워지면서 3조선 평양설이 확고해지게 되었다.

3조선 평양설이 『고려사』 지리지 단계에 성립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조선의 지리에 대한 인식이 그 전까지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의 위치에 대해서는 고려시대에 이미 평양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면이 보이지만, 기자조선의 위치는 전통적인 삼한-삼국(일통삼한)설에 의해 평양이 아닌 다른 지역에 비정되기도 했던 것이다. 삼한-삼국설에 의해 평양이 마한(고구려)의 고지로 인식되면서, 기자조선의 위치가 유동적이게 된 것이다. 이것은 3조선사 체계가 역사적 실체라기보다 역사인식의 산물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4. 고조선사의 시기구분과 계통

『삼국유사』에서는 ‘고조선’ 조목에 ‘王儉朝鮮’이라고 注로 붙여 고조선이 단군왕검의 조선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하지만 고조선조의 내용에서는 단군과 기자의 사실이 함께 서술되어 있다.

‘왕검조선’이라는 주기를 보아서도 고조선이 단군조선만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기자가 조선에 봉해진 이후에도 단군의 藏唐京 移都 및 阿斯達로의 避隱을 함께 기록했다. 또한 『唐裴矩傳』을 인용해 기자의 조선과 고구려 사이의 계승 관계도 서술했다. 내용상으로는 ‘고조선’조 안에 단군과 기자가 모두 포괄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삼국유사』의 기록 방식은 기자를 단군의 시대 속에 포함해 이해하는 것이다. 『삼국유사』에서 기자조선을 따로 설정하지 않은 이유도 이와 관련된다.⁶¹⁾ 『삼국유사』의 ‘고조선’은 단군과 기자의 시기를 포

괄한 개념이란 점에서, 고조선사의 한 단계를 표현하는 용어로는 부적절한 점이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당배구전」을 인용해, “高麗는 본래 孤竹國으로 周가 기자를 봉해 조선으로 삼았다”고 하고, 또 漢이 3郡을 나누어 설치했는데 玄菟·樂浪·帶方 등이 그것이라 했다. 그리고 “『通典』 또한 이 설과 같다”고 했다. 「당배구전」은 『唐書』 裴矩傳으로 『舊唐書』(권63)에는 배구가 隋 煬帝에게 고구려가 본래 고죽국이며 주가 기자를 그 지역에 봉했기 때문에 고구려를 복속시켜야 한다고 권하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배구의 인식은 수당대 군신들이 가지고 있던 한군현 고토회복 인식(군현회복론)⁶²⁾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삼국유사』에서 인용한 「당배구전」은 고죽국-기자조선-고구려로 이어지는 상고사 인식체계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기자조선의 전신은 단군조선이 아니라 고죽국이며, 그 후신은 위만조선이 아니라 고구려가 된다. 「당배구전」에 보이는 상고사 인식은 전통적인 3조선사 체계와 다른 계통이다.

『삼국유사』 왕력에 인용된 「壇君記」에서는 고구려 시조 朱蒙이 단군의 아들이라 하였다. 또한 고구려조에서도 역시 「단군기」를 인용해, 동부여 시조 夫妻가 단군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단군기」에선 단군조선에서 바로 고구려나 동부여로 이어졌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고려시대까지는 고조선사의 체계가 여러 갈래로 다기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고려시대의 고조선사 인식체계는 『삼국사기』 동천왕본기나 『삼국유사』에 보이는 바와 같이 국내 사료인 「고기」의 기록을 존중하는 계통과 『한서』, 『후한서』 등 중국 사서를 주로 따르는 『삼국사기』 연표 계통으로 양분해 볼 수 있다. 편의상 전자를 「본기」 유형, 후자를 「연표」 유형으로 구분해 보고자 한다.

「본기」 유형에서는 단군과 위만의 2조선을 중심으로 고조선사의 체계

61) 박대재, 앞의 논문, 2015, 25쪽.

62) 윤용구, 「고구려와 요동·현도군-수당 군신의 ‘군현회복론’ 검토-」, 『초기 고구려역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8, 150~153쪽.

를 이해하고, 그 중간의 기자조선에 대한 인식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삼국사기』 동천왕본기에서 평양을 선인왕검과 위만의 도움으로 언급한 것이나, 『삼국유사』에서 왕검조선만을 위만조선 이전의 고조선으로 비정한 것이 그러한 경우다. 반면 『연표』 유형에서는 중국 사서에 나타난 기자와 위만의 2조선을 중심으로 고조선사 체계를 이해한다.

『제왕운기』에서 단군의 진조선과 기자의 후조선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위만은 참주로 2조선에 부가하면서 비로소 고조선사가 3단계로 구분되어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왕운기』의 인식체계는 「본기」 유형과 「연표」 유형을 종합한 형태이다.

그동안 별도의 계통으로 인식되던 단군과 기자의 조선을 전·후의 조선으로 시계열화하면서 새로운 2조선사 체계를 세운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비록 참주지만 위만이 부가되었다. 『제왕운기』에서 새롭게 모색된 고조선사 체계가 조선시대에 들어가 3조선사 체계로 발전한 것이다.

『제왕운기』에서는 단군의 향국 연수에 대해 본문에서는 ‘1028년’이라고 했고, 「본기」를 인용한 주에서는 ‘1038’년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본문의 ‘1028’년은 일반적으로 ‘1048’년의 오류로 이해된다.⁶³⁾ 『제왕운기』를 인용한 조선시대의 『應制詩註』, 『東國通鑑』, 『歷代世年歌』 등에 모두 1,048년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1,028년은 오류로 판단된다.⁶⁴⁾

『제왕운기』에서는 단군과 관련하여 「본기」와 「단군본기」의 두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前朝鮮紀에서 「본기」를 인용했고, 위만 다음의 한사군 및 삼한 부분에서 「단군본기」를 인용했다. 여기서 「본기」는 「단군본기」와 같은 자료로 보이며, 전조선기가 단군에 대한 기록이었기 때문에 ‘단군’은 생략하고 「본기」라고만 표기한 것이다.

63) 리상호, 「단군 설화의 년대 문제」, 『역사과학』 5, 1962.

李基東, 「古朝鮮問題의 一考察-帝王韻紀 所在 古朝鮮紀年에 대한 存疑-」, 『大丘史學』 12·13합, 1977.

方善柱, 「韓·中 古代紀年の 諸問題」, 『아시아문화』 2, 1987.

64) 『제왕운기』의 본문은 단군원년을 戊辰年에, 「본기」는 戊寅年에 각각 비정하면서 단군의 향국 연수에 10년의 차이가 생겼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박대제, 앞의 논문, 2015, 23~24쪽 참조.

따라서 단군의 향국이 '1038년'이었다는 것은 『단군본기』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인용한 『단군고기』에서도 '1038년'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단군본기』와 같은 계통의 자료로 이해된다.

『제왕운기』에서 단군의 향국 연대에 대해 '1048년' 또는 『단군본기』를 인용해 '1038년'이라고 한 것은, 『삼국유사』 『고기』에서 '1500년'이라 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D. (단군이) 나라를 다스린 것이 1,500년이였다. 周 武王 즉위년 己卯에 箕子를 조선에 봉하니 단군은 藏唐京으로 옮기었다가, 뒤에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 山神이 되었다. 壽 1,908세였다.⁶⁵⁾

E. (단군이) 殷 武(虎)丁 8년 乙未에 아사달산에 들어가 신이 되시니, 향국 1028[1048]년이네. 어찌 桓因으로부터 전해진 변화가 없겠는가. 그 뒤 164년째 어진 이가 다시 군신 관계를 열었네. 後朝鮮의 시조 箕子이시니, 周 武(虎)王 원년 己卯 봄 이곳에 이르러 스스로 나라를 세우시니, 주 무왕이 봉하여 조서를 내렸네.⁶⁶⁾

두 기록을 비교해 보면, 단군 연대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유사』 인용 『고기』에 따르면, 周 武王 즉위년 기묘에 기자가 조선에 봉해지자, 단군은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다시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 산신이 되었다. 위 기록을 단군이 나라를 다스린 지 1500년 직후에 기자가 조선에 봉해진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다. 즉 단군의 御國과 기자

65) “古記云 … 御國一千五百年 周虎王卽位己卯 封箕子於朝鮮 壇君乃移於藏唐京 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 壽一千九百八歲”(『三國遺事』 卷1, 紀異 古朝鮮).

66) “於殷虎丁八乙未 入阿斯達山爲神 享國一千二[四]十八 無奈變化傳桓因 却後一百六十四 仁人聊復開君臣 後朝鮮祖是箕子 周虎元年己卯春 邇來至此自立國 周虎遙封降命綸”(『帝王韻紀』 卷下, 前朝鮮紀).

의 受封이 바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는 것이다.

그런데 干支紀年法에 주의해서 다시 읽으면 의문이 생긴다. 『고기』에 따르면 단군은 堯 50년 庚寅에 즉위해 1500년 간 御國한 것이다. 그러면 그 말년의 간지는 己丑이 되며, 그 다음 1501년에 다시 庚寅이 된다. 그러나 기자가 조선에 봉해진 해는 周 武王 즉위년 己卯이므로 연대상 간극이 있다.

庚寅과 제일 가까운 1周甲 내의 己卯도 48년 후가 된다. 이것은 간지 기년법에 익숙했던 전통시대 기록에서 있기 어려운 현상이다. 그동안 단군 御國의 하한을 箕子의 受封 시점과 연결해 보아 왔지만, 간지에 주의해 보면 기존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기』의 1500년은 『제왕운기』의 1048년 내지 1038년과 비교해 보면 500년 정도 더 길다. 『맹자』와 『사기』의 연대관에 의하면,⁶⁷⁾ 단군이 즉위한 요임금부터 기자가 조선에 수봉된 서주 초기까지 1000여 년이 흘렀다고 한다. 이로 보아 단군 御國 1500년은 기자의 수봉 시점(서주 초기)으로부터 500년 더 연장된 것이다. 이것은 기자의 시대를 단군의 시대에 포함시켜 보는 연대관이다.

따라서 『고기』에 보이는 단군 御國 1500년의 하한은 기자의 수봉 시점이 아니라, 그 이후 단군이 아사달에 들어간 산신이 된 시점에 비정되어야 한다. 『삼국유사』에서 기자조선의 시대를 따로 설정하지 않은 점도 이러한 연대 인식과 관련된다고 이해된다.⁶⁸⁾

한편 『제왕운기』에서는 단군이 殷 武丁 8년 을미에 아사달 산신이 되어 1028(1048)년이었고, 그 뒤 164년 후인 周 武王 원년 己卯에 기자의 후조선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한다. 단군의 연대가 1500년에서 1048년으로 줄게 되면서, 단군과 기자의 시대가 전-후로 구분될 수 있는 여

67) 『孟子』 盡心章에서 “由堯舜至於湯五百有餘歲 由湯至於文王五百有餘歲 由文王至於孔子五百有餘歲”라고 하였다. 즉 堯舜으로부터 탕왕까지 500여 년, 周 文王(武王의 부)까지 또 500여 년으로, 도합 1000여 년이라고 본 것이다. 물론 정확한 연대가 아니라 500년마다 성인이 출현한다는 天運說의 논리이지만, 이러한 인식은 司馬遷의 『史記』에도 계승되었다.

68) 박대재, 앞의 논문, 2015, 25쪽.

지가 열렸다.

『제왕운기』 이전에는 기자조선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다가, 이에 이르러 고조선의 역사를 단군과 기자 각각 약 1000년씩으로 나누어 양자를 동시에 인정하는 일종의 타협적인 인식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⁶⁹⁾

『삼국유사』의 「고기」에 따르면 기자조선의 시기가 단군조선의 시대에 포함된다. 하지만 단군의 연대를 1000여 년으로 축소해 보면, 단군과 기자의 시대를 구분해 별도의 단계로 각각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제왕운기』에서 단군의 전조선과 기자의 후조선으로 체계화한 것은, 이러한 연대 조정에 의해 가능해진 것이다.

『제왕운기』에서 단군과 기자의 조선이 하나의 체계로 시계열화 되었지만, 2조선의 연대는 제대로 맞물리지 않고 164년의 간극을 두고 부정교합 되었다. 『삼국유사』에서 단군조선에 이어 기자조선을 따로 설정하지 않은 것도, 기자의 수봉 시점이 단군의 어국 기간에 포함되는 연대상의 중복 때문이었다. 두 기록 모두 단군과 기자의 조선이 시계열적으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제왕운기』와 『삼국유사』에 나타난 단군(전조선)과 기자(후조선)의 연대상 부정합은 원래 양자가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계통이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가 중국에서 전해진 기자조선설을 수용하긴 했지만, 국내의 단군조선 전승과 완전하게 하나의 계통으로 체계화 되지 못한 것이다.

전조선과 후조선의 연대 부정합은 조선시대에 들어가서도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단군과 기자의 사이에 164년의 간극이 있던 것으로 이해되었다. 『歷代世年歌』(1436년)⁷⁰⁾와 『應制詩註』(1462년)⁷¹⁾에서 단군 후

69) 조원진, 「고려시대의 기자 인식」, 『韓國史學史學報』 32, 2015, 199쪽.

70) 權攄, 『歷代世年歌』 東國世年歌, “遼東別有一乾坤 山川風氣自區分 三方濱海北連陸 中有萬里之古國 厥初檀君降樹邊 始開東國號朝鮮 竝與帝堯興戊辰 武丁乙未化爲神 享國一千四十八 至今廟在阿斯達 却後一百六十四 周武己卯箕子至”.

71) 權攄, 『應制詩註』 始古開關東夷主, “檀君歷虞夏至商武丁八年乙未 入阿斯達

國(1048년) 이후 164년 뒤에 기자가 조선에 봉해졌다고 본 것이다. 이것은 『제왕운기』의 연대관을 따른 것이다.

단군조선과 기자조선 사이에 보이는 연대상의 부정합은 두 조선 관련 기록이 원래 별도의 계통으로 따로 내려오다가, 후대에 하나의 체계로 합쳐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의 역사가 각각 전승되다가 후대에 하나의 체계로 합쳐지면서, 연대의 부정합이 해결되지 못하고 불완전하게 결합된 것이다. 연대의 부정합은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의 기록이 상당기간 독자성을 유지하고 각각 전승되었음을 시사한다.

단군조선의 전승은 중국측 기록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삼국유사』 인용 「古記」나 『제왕운기』 인용 「本紀」 및 「檀君本紀」와 같은 국내 古記類에서만 확인된다. 『삼국유사』 왕력과 고구려조 인용 「壇君記」, 權寧의 『응제시주』 인용 「古記」, 『세종실록지리지』 인용 「檀君古記」, 『동국통감』 인용 「古紀」, 『동국여지승람』 인용 「고기」 등이 단군조선 관련 주요 전거 자료들이다. 따라서 단군조선 기록은 국내 고기류를 통해 전승되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 인용 「壇君記」에서는 단군조선에서 고구려 또는 동부여로 상고사 계통이 이어졌다고 보았다. 이것은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을 선후 관계로 연결해 보는 3조선설과 다른 인식 체계이다. 국내 고기류에서는 고조선사의 체계를 중국사서와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기자조선의 전승은 漢武帝가 위만조선을 정복하고 漢四郡을 설치한 기원전 108년 이후 기록에서부터 확인된다. 司馬遷의 『史記』 宋微子世家, 伏生の 『尙書大傳(書傳)』, 焦延壽의 『易林』 등 모두 기원전 1세기 무렵의 기록들이다. 기자조선설은 그 후 班固의 『漢書』 지리지, 魚豢의 『魏略』, 陳壽의 『三國志』 동이전, 范曄의 『後漢書』 동이전을 거치면

化爲神 今黃海道文化縣九月山也 廟至今存焉 享年一千四十八年 厥後一百六十四年己卯 箕子來封”.

서 기자조선-위만조선-한사군의 계승 체계로 확립되어 갔다.⁷²⁾

단군조선 전승과 기자조선 전승이 언제 하나의 체계로 결합이 시도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삼국유사』 인용 「고기」에 단군의 조선과 기자의 조선이 동시에 보인다는 점에서, 「고기」가 편찬된 고려 초⁷³⁾에 불완전하게나마 2조선의 연결이 시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고기」에서는 아직까지 단군과 기자의 조선이 시계열적으로 체계화되지는 못했다. 앞서 보았듯이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이 시계열적으로 결합된 것은 고려 후기의 『제왕운기』에 이르러서였다.

고조선사의 체계를 단군과 위만을 중심으로 인식한 「본기」 유형과 기자와 위만을 중심으로 인식한 「연표」 유형이, 『제왕운기』 단계에 이르러 종합·절충되어 단군-기자-위만의 시기구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구분이 조선시대에 들어가 3조선사 체계로 발전한 것이다.

3조선사의 체계화는 다른 계통의 고조선사 체계를 하나로 종합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단군의 조선과 기자의 조선이 시계열적으로 먼저 연결되고, 여기에 위만이 추가되면서 3조선사 체계로 성립하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고려~조선시대 고조선사 인식체계의 변화를 도표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72) 박대재, 앞의 논문, 2016, 11~18쪽.

73) 『삼국유사』 고조선조 인용 「고기」의 편찬 시기에 대해서는 박대재, 앞의 논문, 2015, 36~37쪽 참조.

<표 2> 고조선사 인식체계의 변화 과정

역사서	시기구분	전거	체계
『三國史記』 本紀	선인왕검(단군)- 왕함(위만)	『고기』+중국사서	2조선(단군+위만)
『三國史記』 年表	기자-위만	중국사서	2조선(기자+위만)
『三國遺事』	고조선(왕검조선)- 위만조선	『고기』+중국사서	2조선(단군+위만)
『帝王韻紀』	전조선-후조선-위만	『단군본기』+중국사서	2조선+위만
『東國史略』	단군조선-기자조선- 위만조선	『제왕운기』+『삼국유사』	3조선
『高麗史』 地理志	전조선-후조선-위만조선	”	3조선
『東國通鑑』	단군조선-기자조선- 위만조선	”	3조선
『東史』	전조선-중조선-후조선	”+『奇氏族譜』	3조선

이상과 같이 고조선사 인식체계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면, 고조선사의 전개를 일원적인 3조선사 체계로 인식하는 것은 史實보다는 史論의 범주에 있는 문제임을 알게 된다.

고조선사의 체계는 사료 유형에 따라 계통적으로, 역사인식의 변화 과정 속에서 맥락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동안 통설로 받아들여졌던 3조선사 체계에 대해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다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5. 맺음말

고조선사가 단군조선(전조선)-기자조선(중조선)-위만조선(후조선)으로 전개되었다고 보는 3조선사 체계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성립된 역사 인식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단군-위만 또는 기자-위만의 2조선사 체계가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다가 『제왕운기』에서 단군의 전조선과 기자의 후조선이 정통의 조선으로 인식되고, 위만은 참주로 2조선에 부기되면서 고조선사를 3단계로 볼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李詹의 기록을 통해 1403년 편찬된 『동국사략』에서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의 3조선사 체계가 처음 성립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고려사』 지리지에서 평양이 3조선 모두의 도읍이라는 3조선 평양설이 등장하고, 조선 후기 이종휘의 『東史』에 이르러 전조선(단군조선)-중조선(기자조선)-후조선(위만조선)으로 연결해 보는 일원적인 3조선사 체계가 확립되었다.

기자조선설이 漢代 이후 부회된 중화주의적 인식이라는 것은 비교적 널리 공감되는 사실이다. 그 때문에 ‘기자조선’이란 용어 대신 ‘개이지조선’, ‘검조선’, ‘크치조선’, ‘한씨조선’, ‘예맥조선’ 등이 그 대안으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고조선사의 전개를 전-중-후 3조선사의 체계로 보는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자조선에 대한 비판이 고조선사의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대안 용어를 모색하는 데 집중해 왔던 것이다.

이상의 검토에 의하면 고조선사는 전-중-후의 시계열적 체계가 아니라, 시·공간을 달리하던 3조선의 다원적인 체계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소위 ‘기자조선’은 국내 고기류에 전하는 단군조선과 시·공간적으로 구분된 조선이었다. ‘기자조선’의 실체는 역사적으로 『사기』에서 전국시대 燕에게 복속되었다고 한 ‘眞番·朝鮮’의 조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위만이 진번·조선의 蠻夷와 燕·齊의 중국계 망명자들을 복속시켜 왕이 되었는데,⁷⁴⁾ 여기서 언급된 “蠻夷의 조선”은 분명히 기자의 교화를 받아 문명화되었다고 한 ‘기자조선’과는 구분되는 역사적 존재다.

74) “燕王盧縮反入匈奴 滿亡命 聚黨千餘人 魑結蠻夷服而東走出塞渡淇水 居秦故空地上下鄣 稍役屬眞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命者王之 都王險”(『史記』卷115, 朝鮮列傳).

『사기』宋微子世家에서는 기자의 조선을 언급하고 있지만, 조선전에 서는 기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사마천은 기자의 조선과 위만조선 이전에 있었던 “만이의 조선”을 구분해 본 것이다. 위만조선 앞에 있던 “만이의 조선”이 바로 단군조선과 구분되는 또 다른 조선의 역사적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사기』에서 위만조선 이전 조선의 주민으로 언급된 ‘蠻夷’의 실체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소위 ‘기자조선’으로 인식되어 왔던 조선의 성격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위만조선 이전 고조선의 토착주민은 대체로 ‘예맥족’이었다고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예맥족의 용어에는 예, 맥, 예맥에 대한 다양한 이해 방향 때문에 그 실체를 규정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

위만조선 이전 “만이의 조선”과 관련하여 『管子』(揆度·輕重甲)에서 文皮의 산지로 齊에 알려져 있던 ‘發朝鮮’의 존재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시대에 편찬된 『관자』에는 管仲(?~기원전 645년)이 제나라의 재상이었던 춘추시대 이후의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⁷⁵⁾ 여기에 보이는 ‘發朝鮮’은 시기적으로 보아 위만조선 이전 “만이의 조선”에 해당하는 조선임은 분명하다.

그동안 『관자』의 ‘發朝鮮’에 대해선 發을 곧 貊으로 파악해 ‘發의 조선’ 즉 貊族의 조선으로 이해하기도 하고,⁷⁶⁾ 다른 한편 발과 조선으로 분별해 별개의 세력으로 구분해 보기도 했다.⁷⁷⁾

‘發’은 『逸周書』(王會解)에도 ‘發人’으로 보이며, 『大戴禮記』(五帝德·少閑)에도 山戎, 肅慎과 함께 發(北發)이 보인다.⁷⁸⁾ 『일주서』에서는 ‘發人’이 ‘穢人’과 구별되어 보인다. 이 점에서 發은 濊를 포괄하는 범칭의 ‘예맥’과도 구분되는 구체적인 실체라고 이해된다.

75) 『관자』의 사료적 성격과 발조선 기록에 대해서는 박대재, 『『管子』의 發朝鮮과 穢貉』, 『중국 고문헌에 나타난 고대 조선과 예맥』, 경인문화사, 2013, 137~165쪽 참조.

76) 김정배, 「고조선의 국가형성」,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97.

77) 송호정,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78) 박대재, 앞의 책, 2013, 208·241쪽.

發朝鮮의 文皮는 山東의 齊나라에까지 알려진 특산품으로 海內 7寶 가운데 하나였다. 발조선의 문피는 『爾雅』에서 東北지방의 아름다운 산물로 보이는 “斥山の 文皮”와도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기존에는 斥山을 문피가 수입되던 제나라 산동지역의 集散地로 파악하고, 그 위치를 文登縣(榮成) 해안가의 赤山에 비정해 보았다.⁷⁹⁾

하지만 斥山은 文皮의 입항지가 아니라 產地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야』에서 9方의 산물을 소개하면서 모두 그 산지를 앞에 표기했는데, “斥山の 文皮” 역시 척산에서 나는 문피라고 파악된다. 문피의 산지인 척산은 산동의 제나라와 해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동북지방이라는 점에서, 산동반도와 발해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요동반도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발조선의 위치 역시 斥山과 관련된 요동지역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⁸⁰⁾

發의 종족적 성격이나 발조선의 실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연구를 통해 더 고찰해 보아야 하지만, 일단 위만조선 이전에 존재했던 “만이의 조선”을 ‘發朝鮮’과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동안 소위 ‘기자조선’으로 인식되어 왔던 조선은 단군조선이나 위만조선과 시·공간적으로 구분된 별종의 조선으로써, 『사기』에서 위만조선 이전에 있었다고 한 “蠻夷의 朝鮮”이 바로 이에 해당하고, 『관자』의 ‘발조선’이 그 실체였을 가능성이 높다. 發朝鮮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연구를 통해 논지를 진척시켜 보고자 한다.

79) 張政烺, 「上古時代の中朝友好關係」, 『五千年來的中朝友好關係』, 開明書店, 1951, 9쪽.

80) 박대재, 「古朝鮮과 齊의 해상교류와 遼東」, 『韓國史學報』 57, 2014, 17~27쪽.

참고문헌

- 金成煥, 『세조의 평양 巡幸과 檀君墓』, 『朝鮮時代 檀君墓 認識』, 경인문화사, 2009.
- 金貞培, 『韓國民族文化의 起源』, 고려대 출판부, 1973.
- _____, 『韓國古代의 國家起源과 形成』, 고려대 출판부, 1986.
- _____, 『고조선에 대한 새로운 해석』,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0.
- 노태돈, 『三韓에 대한 認識의 變遷』, 『韓國史研究』 38, 1982.
- 박대재, 『중국 고문헌에 보이는 고대 조선과 예맥』, 경인문화사, 2013.
- _____, 『古朝鮮과 齊의 해상교류와 遼東』, 『韓國史學報』 57, 2014.
- _____, 『檀君紀元과 「古記」』, 『韓國史學報』 61, 2015.
- _____, 『箕子朝鮮과 小中華』, 『韓國史學報』 65, 2016.
- _____, 『고조선 이동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55, 2017.
- 박득준, 『고조선력사개관』, 사회과학출판사, 1999.
- 박준형, 『한국 근현대 기자조선 인식의 변천』, 『고조선사 연구 100년-고조선사 연구의 현황과 쟁점』, 학연문화사, 2009.
- 方善柱, 『韓·中 古代紀年の 諸問題』, 『아시아문화』 2, 1987.
- 徐永大, 『檀君關係 文獻資料 研究』, 『檀君-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 출판부, 1994.
- 徐榮洙, 『古朝鮮의 위치와 疆域』, 『韓國史市民講座』 2, 一潮閣, 1988.
- _____, 『고조선사 연구의 쟁점과 흐름』, 『고조선과 위만조선의 연구쟁점과 대외교류』, 학연문화사, 2015.
- 송호정,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 오현수, 『『魏略』 기재 朝鮮侯와 ‘取地二千餘里’의 검토』, 『韓國史學報』 61, 2015.
- 윤용구, 『고구려와 요동·현도군-수당 군신의 ‘군현회복론’ 검토-』, 『초기 고구려역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8.
- 이강한, 『1325년 箕子祠 祭祀 再開의 배경 및 의미』, 『한국문화』 50, 2010.
- 李基東, 『古朝鮮問題의 一考察-帝王韻紀 所在 古朝鮮紀년에 대한 存疑-』, 『大丘史學』 12·13합, 1977.
- 李基白, 『古朝鮮의 諸問題』, 『韓國古代史論』, 탐구당, 1975.
- 李丙燾, 『韓國史』(古代篇), 乙酉文化社, 1959.
- 전대준·최인철, 『조선단대사(고조선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 鄭求福, 『東國史略에 대한 史學史的 考察』, 『歷史學報』 68, 1975.
- _____, 『雙梅堂 李詹의 역사서술』, 『東亞研究』 17, 1989.
- 조원진, 『단군과 기자-고조선사의 체계에 대한 고찰-』, 『고조선단군학』 31, 2014.
- _____, 『고려시대의 기자 인식』, 『韓國史學史學報』 32, 2015.

국문초록

고조선사가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의 3단계로 전개되었다고 보는 3조선설은 조선시대 이래 현재까지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근대 이후 기자조선이 부정되고, 그 대신 ‘개아지조선’, ‘韓氏朝鮮’, ‘濊貊朝鮮’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고조선사가 3단계로 계승되었다고 보는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서는 단군과 위만, 또는 기자와 위만의 2조선을 중심으로 고조선사의 체계를 인식했다. 『帝王韻紀』에 이르러 단군의 前朝鮮과 기자의 後朝鮮에 더해 위만을 僭主이나마 추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 조선시대에 들어가 1403년 편찬된 『東國史略』에서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의 3조선사 체계가 성립되고, 조선 후기 이종휘의 『東史』에서 前朝鮮-中朝鮮-後朝鮮의 시계열적인 3조선사 체계로 확립되었다.

3조선사 체계는 하나의 계통이 일관되게 이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3조선의 역사가 조선시대 이후 하나의 계통으로 합쳐진 결과이다. 따라서 고조선사는 전-중-후의 시계열적 체계가 아니라, 시·공간을 달리하던 3조선의 다원적인 체계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史記』를 통해 그동안 소위 ‘기자조선’으로 칭해왔던 조선과 구분되는 위만조선 이전의 “蠻夷의 조선”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만이의 조선”이 바로 단군조선과 구분되는 별종의 조선인데, 『管子』에서 文皮의 산지로 齊나라에 알려졌던 ‘發朝鮮’이 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發朝鮮은 山東의 齊나라와 해상을 통해 교류했다는 점에서 遼東지역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어 : 고조선, 3조선,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전조선, 중조선, 후조선, 발조선

Abstract

New Understanding of the Framework of the Old Chosŏn's History

Park, Dae-Jae

The Theory of Three Chosŏns, which demonstrates that the Old Chosŏn's history progressed in three stages of Tan'gun Chosŏn, Wiman Chosŏn, and Kija Chosŏn, has been widely accepted thought since the late Chosŏn dynasty until now. Although the existence of Kija Chosŏn was denied and suggested to replace it with Kaeaji Chosŏn, or Hanssi Chosŏn(韓氏朝鮮), or Yemaek Chosŏn(濊貊朝鮮), the notion that the Old Chosŏn's history progressed in the three stages was hardly changed.

Samguksagi and *Samgukyusa* recognized the Old Chosŏn's history consists of two stages; the former believed that the history of the Old Chosŏn was made of Kija Chosŏn and Wiman Chosŏn, and the latter Tan'gun Chosŏn and Wiman Chosŏn. Around the time when *Chewangun'gi* (帝王韻紀) was written, the author added Wiman, though a usurper, to the stages of Tan'gun's 'Former Chosŏn,' and Kija's 'Later Chosŏn.'

Although the Old Chosŏn's three stages seems to consist of a single lineage consistently, it was the result of synchronizing the history of three Chosŏns, which were separated from each other in time and space, into one chronology since the late Chosŏn dynasty. Thus,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Old Chosŏn's history as pluralistic framework of the three Chosŏns, which was different in time and space, rather than time series of three stages.

Key word : Three Chosŏns, Tan'gun Chosŏn, Wiman Chosŏn, Kija Chosŏn, Former Chosŏn, Middle Chosŏn, Later Chosŏn

투고일 : 2018. 7. 16. 심사완료일 : 2018. 8. 1. 게재확정일 : 2018. 8. 6.
--